건설 인력과 산업연수생

상대적으로 숙련 수준이 낮고 취약한 기능과 또한 언어 소통의 문제점 등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회사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회사의 이익과 더불어 그들도 선진 기술을 익히고 개개인의 목적인 부도 축적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득이 되는 제도 아닐까.

박병한
풍림산업(주) 상무이사

오늘도 경쾌한 리듬과 힘찬 구령 속에 안전체조를 시작으로 건설 현장의 상쾌한 아침을 연다. 활기찬 근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요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3국인들로 인해 나의 지난 해외 근무 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곤 한다. 예전 우리를 필요로 했던 열사의 그 나라들처럼 이제 우리도 이들이 필요한 것이다.

1970, 80년대 수출 주도의 산업 정책에 맞춰 오일쇼크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건설 인력의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1990년대 초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의 추진과 공공 사업 확대 등은 자재난과 인력난 속에서도 전반적인 경기 활황에 힘입어 건설 경기 활성화와 경제 상승에 일조했다. 하지만, 1997년 말 IMF 환란 이후 사회 전반의 경기 침체와 건설업체간 경쟁 심화, 비용 상승, 이윤율 감소 등으로 극심한 건설 인력난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건설 인력의 취업 구조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여 제조업에 비해 외환 위기의 충격을 더 크게 받은 반면 회복세는 오히려 더 지체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 3D업종이라는 인식 아래 국내 청년층의 건설 현장 진입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건설산업의 노동력 생산 기반이 크게 약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공의 고갈은 노동력 생산의 와해를 의미하며, 건설산업에 막대한 위험 요소로 등장하였다. 기술직 및 사무관리직 취업자 수는 1999년 말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기능직 취업자 수는 불규칙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에 따라 건설 인력 수요 예측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작금의 원자재 파동과 각종 건설 자재의 원가 상승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 회사도 정부의 주택 개발 사업에 맞춰 공공 주택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고객 가치를 증대하고 이젠 고객의 만족과 감동을 넘어 더 나아가 고객이 이루었다는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최고의 품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파로 인하여 건설경기 전반이 침체되고 건설 인력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설 인력 수급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인력 수요의 범위와 수준을 파악하고 적정 수준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인력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인력 수급 구조를 안정시키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바람직하다. 필요 인력이 적기적소에 수급될 수 있도록 국내 건설 인력의 추가적인 인건비 증가와 인력난에 대비하며 건설 인력의 공급난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숙련 수준이 낮고 취약한 기능과 또한 언어 소통의 문제점 등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회사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회사의 이익과 더불어 그들도 선진 기술을 익히고 개개인의 목적인 부도 축적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득이 되는 제도 아닐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추위와 바람을 피하기 위해 풀과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하여 그 옛날 공상 과학 소설에서나 생각했던 최첨단 시설물을 건설하기까지 우리 건설인이 함께 하였음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

건설한다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한다. 無에서 有를 창조하고 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이루었을 때의 희열감. 그래서 필자는 건설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진다. CJ